

살벌한 국민의당...최고위서 공개 노출

통합과 이태우 “분란 부추기지 말고 정치9단답게 결단” 박지원 탈당 주장 반대과 박주현 “합의 없는 합당, 히틀러도 법대로 했다” 안철수 사퇴 요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담대회 소집 이후 사실상 합의이혼만 남겨둔 국민의당이 15일 살벌한 당내 분위기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통합 반대파 수장격인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 “결단을 거론하는 등 당을 떠나려는 요구가 공개 분출됐다.”

이태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박 전 대표를 위시한 반대파를 향해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기구까지 출발한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해당행위”라며 “신당을 창당하려면 결단을 내리고 나가서 진행하

시면 될 일”이라고 통합 반대파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안철수 사당화라고 하기 전에 박지원 사당화가 되길 원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상왕이 되고 싶었으나 뜻대로 안 되니 뽀니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지 말고 정치9단답게 큰 결단을 내리길 부탁한다”고 반대파 수장격인 박 전 대표의 탈당을 주장했다.

김중로 최고위원 역시 “중진이면 중진답게 제대로 하라. 중진이면 배울 게 있고 존경할 점이 있어야 한

다”며 “대표한테 무슨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초딩이다. 저능아다. 사이코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에 동의하겠나”라고 박 전 대표와 유성엽 의원 등 안 대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반대파들을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최고위에서 유일하게 반대파 소속인 박주현 최고위원을 향해 “당내에서 백주대낮에(반대표파) 신당 창당을 모의하고 집행부까지 꾸려 활동을 한다”며 “여기 최고위에 와서 발언하고 불법모의 가서 모두발언을 하고, 어느 당의 최고위원이 여기 와

서 앉아있냐”라고 비난했다.

장진영 최고위원 역시 “전국여성위원장이 박 최고위원이다. 그런데 박 최고위원이 여성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우리 당 여성당원들의 원성이 있다”며 “우리 박주현 여성위원장님으로부터 여성정책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말한다”고 발언. 최고위 회의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온 박 최고위원을 몰아세웠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그러나 “당내 합의, 의원총회 합의가 없이 합당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히틀러도 법대로 했다”고 지난 정부 국정농단 주역들이 한결같이 하는 변명이 ‘법대로 했다’는 것”이라고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전담대회 소집 등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 최고위원은 “여지 결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고 합당을 해야겠으니들이 나가든 말든 하라. 비례대표는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라”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을 지키는 의원들은 바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반대하고 국민의당을 짊어준 유권자들의 뜻을 옳오이 받들고 있는 합당 반대 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표거부 운동 속에서 강행된, 합당 찬반 투표도 아닌 당대표 재신임 당원 투표가 합당 강행과 그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 탈법, 폄수를 정당화시켜준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 신중 구태정치라는 평가 나오는 것”이라며 “중재파 의원들은 어제도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들었다. 사퇴하라. 국민의당이 한 사람의 당정농단으로 파탄날 수는 없다”고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무대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부산간 홍준표 “탈당 과거 묻지 말고 하나 돼야” 촉구

김무성 “지은 죄가 많아”... 지지자 “배신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부산을 찾아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탈당 과거를 묻지 말고 하나가 되자”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당은 이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했고 친박 핵심들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 초반 부산 영도구가 지역구이자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무성 의원이 “제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한 지지자가 “배신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지금 하나가 돼야한다”며 “하나가 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좌파 문재인 정부를 격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은 이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지”라며 “부산시민들이 더 이상 좌파에게 현혹되지 말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6.13지방선거가 저들에게 넘어가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편향된 여론 조사와 포털의 뉴스선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에 대한 나쁜 기사가 나오면 포털메인에 뜬다”며 “그러면 문슬람(문재인과 이슬람 합성어) 댓글부대들이 달려들어 90%욕을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정권은 세월호와 국정원 댓글 이용해 파대포장하고 침소봉대해서 집권했다”며 “댓글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하다”며 “이건 독일 괴물식 나라운영”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해 “정년들이 희망을 잃고 가상화폐 쪽에 몰릴 수 밖에 없는데도 그것마저 없앤다고 하고 있다”며 “이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정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장세선 고흥군의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상임위원 임명

“지방자치 확고히 정착·분권국가 만들기에 최선”

고흥지역 차세대 일꾼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장세선 고흥군의회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장세선 군의원은 7대 고흥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고흥군 대표로 활

동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원에는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최형식 담양군수 등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를 포함해 전국에서 29명이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로드맵 마련,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특성에 맞는 경

제활성화정책 및 일자리창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건설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장세선 군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 정부의 분권화정책이 제도로서 정착되는 헌법개정이



만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진정한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유승민, 통합 반대파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5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를 향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내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전담대회는 절차

상 방법이고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은 암묵이 통합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과 통합선언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당 내부에서도(바른정당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